

30~40대 자녀양육기 부모의 자녀돌봄, 문화·여가활동 시간, 성역할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시간 사용의 양태를 중심으로

최 지 수¹⁾

최 나 야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에서는 30~40대 자녀양육기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의 사용 양태를 파악하고, 부모의 생활시간 사용과 성역할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Stata 14.0과 SPSS 22.0, Excel 2016을 사용하여 요인분해,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다변량분산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평일에는 2시간 반, 주말에는 1시간 더 자녀를 돌보고, 문화·여가활동 시간은 주말에 1시간 더 짧았다. 부모 모두 자녀돌봄 중 ‘신체적 돌보기’, 문화·여가활동 중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부모 모두 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경우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이 가장 길었고, 부모 모두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 어머니의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가장 길었다.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만 평등적일 때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는 성역할 태도 유형이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자녀양육기 부모의 시간 사용과 성역할 태도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생활시간연구, 삶의 만족도, 성역할 태도, 자녀돌봄 시간, 문화·여가활동 시간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수료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E-mail: choinaya@sn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빠가 자녀 육아를 도맡아 하는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아빠의 육아 경험을 담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아빠의 양육이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무엇이 아빠의 자녀돌봄을 이슈가 되게 했을까? 이에 대한 논의는 성역할 본질주의(gender essentialism)에서부터 시작된다.

성역할 본질주의란 성별에 따라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성별에 맞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여성은 가족 돌봄, 남성은 가족의 생계 부양의 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신념이다(Crompton & Lyonette, 2005; England, 2010). 성역할 본질주의는 ‘남자는 일-여성은 가정’이라는 공식에 동의하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갖게 만들며, 여성과 남성이 맡아야 할 역할이 각자 다르다고 생각하게 만든다(Brinton, 2016; Brinton & Lee, 2016). 이러한 신념은 하나의 가치관으로 작용하며 인간 행동과 사회 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노동과 돌봄을 해야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사회 곳곳에서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성역할 태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우세하게 작용하는 편이다(은기수, 이윤석,

2005; Benokraitis, 2008). 이는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에 시간을 훨씬 많이 쓰고(김소영, 진미정, 2016; 손문금, 2005; 허수연, 김한성, 2019), 취업 과정에 있어서 갈등을 겪으며, 맞벌이를 하더라도 일과 가정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양소남, 신창식, 2011; Cha, 2010; Kim & Cheung, 2015)을 통해 드러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취업을 지지하는 보수주의가 지배적이다. 성역할 태도를 유형화하여 전통적-평등적인 정도에 따라 나열하면, ‘전통적’, ‘취업 지지 보수주의’, ‘유연한 평등’, ‘완전한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국의 20~40대 성인의 성역할 태도를 분석한 결과 60% 이상이 여성의 취업을 지지하는 보수주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inton & Lee, 2016). 이러한 신념은 여성이 취업과 가정일을 둘 다 맡기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취업을 지지하는 보수주의’라고 명명된다. 즉, 여성이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일을 하더라도, 전통적 성역할 태도에서 여성에게 요구하는 가정 돌봄과 자녀양육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공선희, 2009)이 기저에 깔린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특히 30~40대 취업모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양소남, 신창식, 2011).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취업률로도 나타나는데, 출산과 자녀양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30대 중반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감소하다가 자녀가 성장하고 난 뒤에 다시 취업률이 상승하는 M자형 곡선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윤미례, 김태일, 2016). 이는 취업모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우며, 자녀 양육을 여전히 어머니가 주로 부담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 양육과 일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김은지, 박재호, 2010; 한인영, 홍선희, 2011)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성역할 태도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역할 태도는 크게 전통적이거나 평등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별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고 믿을 경우를 ‘전통적’, 다르지 않다고 믿는 경우를 ‘평등적’ 성역할 태도라고 명명한다(김소영, 진미정, 2016; 채민진, 2019; Corrigan & Konrad, 2007).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일수록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김효진, 신현우, 홍선희, 2020), 한국 사회가 ‘취업을 지지하는 보수주의’가 만연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일수록 사회와 가정에서 더 빈번히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대로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 태도 유형을 수긍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다면 갈등이 오히려 적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갈등은 부부의 성역할 태도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도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일치할 때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으며(고재홍, 전명진, 2003; 김은지, 박재호, 2010), 일치하지 않을 때 서로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배우자의 실제 수행의 불일치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김미경, 고재홍, 2008)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한쪽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가 어떤지보다는 본인의 성역할 태도가 더 중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배우자의 성역할 태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성

역할 태도가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보호 요인 또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와 달리, 부모 단위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이러한 양상을 살펴봄에 있어 특히 30~40대 부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부부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시작하며 둘 사이의 관계 양상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Duvall과 Miller(1985)는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라 발달과업과 관계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전과 후의 양상이 질적으로 달라짐을 보여준다. 자녀를 낳기 이전인 신혼부부는 ‘부모’라는 역할 없이 ‘부부’로서 둘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며 독립된 가족을 구성해 나가는 단계이다(1단계). 하지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시작하는 영아기 가족(2단계)의 시기가 시작되면 부부는 ‘남편과 아내’라는 역할에 ‘아빠와 엄마’라는 역할을 새로 맡게 된다. 이 시기부터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자녀 양육에 집중되는데,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인 유아기 가족(3단계), 첫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고 사춘기를 맞이하기 전까지인 아동기 가족(4단계), 그리고 더 나아가 첫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인 청년기 가족(5단계), 첫 자녀가 독립을 하기 시작하는 독립기 가족(6단계)의 단계까지 자녀 양육은 계속 이어진

다.

이러한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족의 발달 양상 중에서도 30~40대의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영아기 가족(2단계)과 아동기 가족(4단계) 단계의 사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녀 양육기 부모’라고 통칭할 수 있다. 자녀 양육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특히 성인의 돌봄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시간과 에너지, 경제적인 자원이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막중하다(윤기봉, 지연경, 2017; 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 이 시기는 가족생활 주기상 자녀출산 및 양육이 이루어져, 가정환경이 자녀를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고 자녀 양육이 부부 관계에 있어 주요한 과제가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김민녀, 채규만, 2006). 따라서 신혼부부기의 높았던 결혼만족도는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하며 급락한다고 한다(김민녀, 채규만, 2006; Dew & Wilcox, 2011). 게다가 현대사회의 핵가족화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이러한 격변의 시기를 오롯이 부모가 도맡아 자녀 양육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장영애, 2012). 이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일과 가정에 있어서 각자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부담이 부담히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때 자녀 양육에서의 갈등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의 감소가 눈에 띈다(김민녀, 채규만, 2006; 윤기봉, 지연경, 2017). 이러한 점에 미루어볼 때, 자녀 양육기 부모의 자녀돌봄과 삶의 만족도 간의 역동적인 관계가 예측된다.

자녀돌봄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모

두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 중 하나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돌봄은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한데, 부인이 취업을 했더라도 자녀 양육과 가사에 있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남성이 많고(공선희, 2009), 실제로도 여성이 자녀돌봄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문금, 2005; 한경혜, 장미나, 2009). 하지만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남성일수록 자녀 돌봄에 참여하는 시간이 긴데(박선주, 강민주, 2017; 안미영, 최지은, 2020; Evertsson, 2014),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서로에게 작용하여 가사노동의 분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Evertsson, 2014; Kroska, 2004). 즉,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 자녀돌봄의 분배와 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있어 스트레스원(Coplan, Bowker, & Cooper, 2003)으로 작용하며 돌봄 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김미령, 2014)에서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부모 역할에 대한 만족감과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고(권혜진, 2010),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준다는(김진옥, 박은영, 2018) 이점도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자녀돌봄 시간 이외에도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여가활동은 그 자체로 행복을 주며(Diener, 2009), 여가에 대한 만족은 삶에서의 만족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정은경, 김종근,

2017; 한승엽, 김홍렬, 윤설민, 장윤정, 2007).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점에서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녀를 양육하며 일을 하는 기혼자들에게 있어 직장 일, 자녀돌봄과 같은 시간은 필수적인 일과이지만, 문화·여가활동이 삶에서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필수적인 활동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문화·여가활동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즉, 필수적인 활동에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잉여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박은정, 이성림, 2013), 마음의 여유가 적어지기 때문에 문화·여가활동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여가활동은 가족 스트레스의 경감을 돕고 가족 응집력을 높이며(변해심, 2000), 일과 삶의 적절한 균형은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재완, 강혜진, 2018)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위라벨(WLB: Work-Life Balance)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이재완, 강혜진, 2018), 30~40대 부모의 문화·여가활동 시간의 부족은 삶의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자녀돌봄 시간뿐만 아니라 문화·여가활동 시간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 사용에 대해 조사한 연구 결과(윤대혁, 2008)에 따르면, 남성은 대부분의 여가시간에 개인 취미활동을 하지만, 여성은 자신보다는 가정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과 가정에 시간을 사용

하느라 문화·여가활동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짐을 보여준다(양소남, 신창식, 2011). 이러한 결과에서 더 나아가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라 문화·여가활동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류연규, 하운숙, 2017; Park, 2016)를 통해 추측하건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는 여성은 미취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더 많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삶의 만족도도 더 높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 일을 하더라도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으면 퇴근한 이후의 나머지 시간을 가정보다는 자신만의 여가시간으로 사용하여(윤대혁, 2008) 여가활동 시간이 충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하기에 앞서, 자녀를 양육 중인 30~40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의 활용 양상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김미령, 2014; 정은경, 김종근, 2017)은 자녀돌봄, 문화·여가활동이 어떻게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 이바지하기는 하였지만, 이들의 실제적인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의 사용 양태를 세부적으로는 파악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나 평균적인 사용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양상을 파악한다면,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정책수립을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부모의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은 부모 자신뿐만 아

나라, 자녀와 가족 단위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이재완, 강혜진, 2018; Coplan et al., 2003; Diener, 2009), 구체적인 시간 사용의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녀 양육기인 30~40대 부모의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주로 어떤 형태의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자녀 양육기인 30~40대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부모의 구체적인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의 양태를 파악하고, 성역할 태도 유형과 생활시간 사용의 정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30~40대 자녀양육기 부모의 평일/주말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의 평균적인 양상은 어떠한가?

1-1) 부모 간의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 사용에 차이가 있는가?

1-2) 부모의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은 유형별로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연구문제 2. 30~40대 자녀양육기 부모의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의 사용 및 성역할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1)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라 자녀

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2-2)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 자녀 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9년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이틀 연속으로 개인의 시간 사용에 대해 행동을 10분 단위로 수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 사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시간일지 작성은 연구참여자의 작성 방법의 숙지에 따라 둘째 날에 더 행동 발생건수가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손애리, 2000) 둘째 날로 시간을 산출하였다. 조사된 요일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부모의 성역할 태도와 시간사용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시간 사용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주로 사용한 생활시간 형태에 대한 조사는 자녀 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이다. 연구참여자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주로 한 행동과 동시에 한 행동에 대해 응답하도록 시간일지가 구성되어 있다. 주로 한 행동은 기입하는 시간대의 주된 목적이 되는 행동이고, 동시 행동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부수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주로 한 행동과 동시 행동의 구분은 연구참여

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24시간의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주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 주로 한 행동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연구참여자마다 사용한 시간 사용에 대한 평정은 동일하게 24시간이라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만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스포츠 활동을 즐긴 것에 대해 주로 한 행동으로 자녀돌봄의 하위영역인 '아이와 놀아주기 및 스포츠 활동하기'로 표시하고, 동시 행동으로 문화·여가활동 시간의 하위영역인 '스포츠 및 레포츠'로 기입하였다면 이는 주로 한 행동을 기준으로 '자녀 돌봄 시간'으로 해석하였다.

2. 측정도구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평소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항은 5점 서열척도(1점 매우 만족, 2점 약간 만족, 3점 보통, 4점 약간 불만족, 5점 매우 불만족)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성역할 태도 유형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단일 문항의 4점 서열척도이다. 1점 매우 찬성, 2점 약간 찬성, 3점 약간 반대, 4점 매우 반대 중 한 가

를 선택하여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로 나누어 부모의 성역할 태도를 유형화하였다. 성역할 태도의 경우 성별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고 믿는 태도를 전통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명명하고, 성별에 따라 역할이 다르지 않다고 믿는 태도를 평등적, 근대적, 진보적 등으로 이름 붙여왔다(김소영, 진미정, 2016; 채민진, 2019; Corrigan & Konrad,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우 찬성'과 '약간 찬성'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약간 반대', '매우 반대'라고 응답한 경우를 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부모 단위로 성역할 태도의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찬성하는 경우를 '부모 모두 전통적', 둘 다 반대하는 경우를 '부모 모두 평등적'이라고 분류하였다. 아버지는 찬성하고 어머니는 반대하는 경우를 '아버지만 평등적', 아버지는 반대하고 어머니는 찬성하는 경우를 '아버지만 평등적'이라고 명명하여,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은 총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자녀돌봄 시간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기인 30~40대 부모의 미성년 자녀돌봄 시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돌봄에 있어 자녀의 연령을 구분 짓지 않았다. 따라서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표에 따라 '만 10세 미만 아동 돌보기'와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로 나누어 분류되어 있는 돌봄 행동을 모두 포함하여 자녀돌봄 시간을 산출하였다. 자녀돌봄은 7가지 하위영역(신체적 돌보

기, 간호하기,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 책 읽 어주기 및 대화하기, 아이와 놀아주기 및 스포츠활동 하기,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 기타 돌보기)으로 나누어 시간 사용을 측정하였다. 자녀돌봄 시간은 10분 단위로 수집되었으며 하루 동안의 시간 사용 총합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문화·여가활동 시간

문화·여가활동 시간은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영화 관람, 연극·콘서트 등 공연관람, 전시관·박물관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 관광· 드라이브, 기타 문화 및 관광활동이 포함되는 ‘문화 및 관광활동’, 책 읽기, 신문 보기, 잡지 보기, 실시간 방송 시청, 비디오 시청, 실시간 라디오 방송 듣기, 음원·음반 듣기, 인터넷 정보 검색, 기타 미디어 관련 여가활동이 해당하는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활동’, 걷기·산책, 달리기·조깅, 등산, 자전거·인라인, 개인 운동, 구기 운동, 낚시·사냥, 기타 스포츠·레포츠가 포함되는 ‘스포츠 및 레포츠’, 집단게임 및 놀이, 온라인/PC 게임, 모바일 게임, 기타 게임인 ‘게임 및 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 담배 피우기가 ‘휴식 관련 행동’, 개인 취미활동, 여가·교양 학습, 유흥, 기타 여가 관련 활동이 ‘기타 여가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여가활동 시간도 10분 단위로 수집되었으며 하루 동안의 시간 사용 총합을 구하였다.

3. 자료분석

연구문제 1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ver.

22.0(SPSS Inc., Chicago, IL, USA)과 Stata ver. 14.0(Stata Corp LP, College Station, TX, USA) Excel 2016(Microsoft)을 활용하여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분석하기 위해 권순범과 배한진, 진미정(2019)을 참고하여 요인분해를 실시하였다.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의 전체 평균을 확인하고, 실제로 자녀돌봄,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한 행위자만을 대상으로 행위자 평균을 계산하였고, 전체 연구참여자 중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은 전체 시간량을 전체 사례 수로 나눈 것이고, 행위자 평균은 전체 시간량을 행위자 수로 나눈 것이다. 행위자 비율은 행위자 수를 전체 사례 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그다음으로 전체 평균 차이에 대한 요인분해를 실시하였다. 행위자 평균 요인과 행위자 비율 요인이 전체 평균 차이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산술적으로 계산하였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표 1과 같다. 그다음으로는 실제 행위를 한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아버지: 평일 702명/주말 460명, 어머니: 평일 693명/주말 447명)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ver. 22.0(SPSS Inc., Chicago, IL, USA)과 Stata ver. 14.0(Stata Corp LP, College Station, TX, USA)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다변량분산분석(MANOVA:

표 1. 전체평균 차이의 요인분해 방법

기본 자료			전체평균 차이 분해			전체평균 차이 기여도 요인분해	
집단 A의 전체평균	집단 B의 전체평균	순 전체 평균차이	행위자 평균 요인	행위자 비율 요인	총 전체 평균 차이	행위자 평균 요인	행위자 비율 요인
A	B, B'	C = B-A	D = B'-A	E = C-D	$F = \frac{F}{ D + E }$	$D_p = D/F$	$E_p = E/F$

주. B'는 B 집단의 행위자 비율을 A 집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을 때의 전체 평균임. 전체 평균 차이 기여도에서 D_p 절대값과 E_p 절대값의 합은 1임.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Scheffé 사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부모의 성역할 태도의 유형과 분포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분산분석은 상관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의 관계성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간 사용과 삶의 만족도는 서로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다변량분산분석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부모의 취업 여부와 자녀의 수에 따라 자녀돌봄 시간, 문화·여가활동 시간, 삶의 만족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였다. 다변량분산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조건을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인 간 평균벡터가 집단 간에 동일한지 확인하였고, 공분산 행렬에 대한 Box의 동일성 검정에서 영가설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Box's $M = 64.10$, $p = .49$), 각 집단의 분산-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집단 간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이 수용되었다. 또한, 개체 간 효과검증을 위해 Pillai의 트레이스, Wilks의 람다, Hotelling의 트레이스, Roy의 최대근을 살펴본 결과 $p < .001$ 의 수준에서 F 값이 2.59, 2.60, 2.61, 5.62였다. 이러한 분산결과를 통해 부모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독립변인은 동일한 효과를 지니지 않고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개체 간 효과가 있음을 검증한 뒤 집단 간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Scheffé 값을 확인하여 사후검증을 진행하였다. 사후검증을 실시할 때는 통제변인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변인을 제외한 상태에서 집단 별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 도표를 살펴본 결과 등분산임이 확인되었고,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살펴본 더빈 왓슨(Durbin-Watson) 값은 2.04, 2.08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하였으며 1.00~1.91로

모두 10보다 작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귀분석을 위한 가정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모델 1에 투입하여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통제하였고, 모델 2에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을 ‘부모 모두 평등적’인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더미변수화하여 투입하였으며, 모델 3에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 문화·여가활동 시간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30~40대 자녀양육기 부모의 평일/주말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 사용 양상

연구문제 1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

는 30~40대 부모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시간을 사용한 정도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수가 다르며 구체적인 연구참여자의 수는 표 2와 같다.

자녀 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 사용의 차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평일 자녀돌봄 시간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평균 201.77분, 아버지는 45.10분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4배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8.09, p < .001$). 자녀돌봄에 참여한 행위자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을 살펴보더라도 어머니는 206.54분, 아버지는 70.67분으로 여전히 자녀돌봄에서의 차이가

표 2. 30~40대 부모의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의 요인분해

항목		아버지			어머니			전체 평균 차이 (분)	t	전체 평균 차이 기여도 요인분해 (%)	
		전체 평균 (분)	행위자 평균 (분)	행위자 비율 (%)	전체 평균 (분)	행위자 평균 (분)	행위자 비율 (%)			행위자 평균 요인	행위자 비율 요인
자녀 돌봄	평일	행위자수/전체수 = 448/702			행위자수/전체수 = 677/693			156.67	-28.09***	55.34	44.66
		45.10	70.67	63.82	201.77	206.54	97.69				
	주말	행위자수/전체수 = 355/460			행위자수/전체수 = 427/447			62.51	-8.39***	51.17	48.83
		96.39	124.90	77.17	158.90	166.35	95.53				
문화 · 여가 활동	평일	행위자수/전체수 = 644/702			행위자수/전체수 = 622/693			9.84	1.87	-74.06	-25.94
		125.41	136.71	91.74	115.57	128.76	89.75				
	주말	행위자수/전체수 = 442/460			행위자수/전체수 = 426/447			62.93	7.47***	-97.78	-2.22
		232.26	241.72	96.09	169.33	177.68	95.30				

*** $p < .001$.

크다. 또한, 어머니는 대부분이(97.69%) 평일 자녀돌봄에 참여하지만, 아버지는 2/3 정도만(63.82%) 자녀돌봄에 참여하고 있었다. 평일 자녀돌봄 시간의 전체 평균 차이에 대한 기여도의 요인분해 결과, 행위자 평균은 55.34%, 행위자 비율은 44.66%로 어머니가 더 자녀돌봄에 많이 참여하는 것도 요인이기는 하지만 자녀돌봄 시간 자체가 긴 것이 좀 더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주말 자녀돌봄 시간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평균 158.90분, 아버지는 96.39분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1시간 가까이 더 많이 자녀돌봄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8.39, p < .001$). 자녀돌봄에 참여한 행위자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을 살펴보면 어머니 166.35분, 아버지 124.90분으로 시간 차이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는 95.53%로 대부분이 주말 자녀돌봄에 참여하지만, 아버지는 77.17%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자녀돌봄 시간의 전체 평균 차이에 대한 기여도의 요인분해 결과, 행위자 평균은 51.17%, 행위자 비율은 48.83%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보다 주말에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과 참여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어머니는 다소 감소하기는 하나, 여전히 주말에도 어머니의 자녀돌봄에 대한 참여와 자녀돌봄 시간이 아버지보다 더 길고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평일 문화·여가활동 시간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평균 125.41분, 어머니는 115.57분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근소하게 더 많이 문화·여가활동 시간을 갖기는 하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 = 1.87, p =$

.06). 문화·여가활동 시간에 참여한 행위자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136.71분, 어머니는 128.76분이다. 아버지는 91.74%가, 어머니는 89.75%가 평일에 문화·여가활동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와 사용시간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말 문화·여가활동 시간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평균 232.26분, 어머니는 169.33분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1시간 이상 더 많이 문화·여가활동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 = 7.47, p < .001$). 문화·여가활동 시간에 참여한 행위자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을 살펴보면 아버지 241.72분, 어머니 177.68분이다. 아버지(96.09%)와 어머니(95.30%) 모두 주말에는 문화·여가활동 시간에 대부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문화·여가활동 시간의 전체 평균 차이에 대한 기여도의 요인분해 결과, 행위자 평균은 97.78%, 행위자 비율은 2.22%로 문화·여가활동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는지가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화·여가활동 시간에 차이가 없으나, 주말에는 아버지가 문화·여가활동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차이를 가져온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녀 돌봄과 문화·여가활동의 유형별 시간 사용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돌봄 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신체적 돌보

표 3. 30~40대 부모의 평균 자녀돌봄 시간

자녀돌봄의 유형	아버지				어머니			
	평일 ($n = 702$)		주말 ($n = 460$)		평일 ($n = 693$)		주말 ($n = 447$)	
	$M (SD)$		$M (SD)$		$M (SD)$		$M (SD)$	
신체적 돌보기	20.43	(35.25)	40.43	(60.51)	116.12	(95.24)	92.46	(96.98)
놀아주기, 스포츠 활동하기	14.80	(27.48)	36.96	(50.91)	29.80	(48.67)	28.05	(51.77)
책 읽어주기, 대화하기	4.00	(12.93)	6.67	(18.42)	13.78	(23.81)	10.94	(22.61)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	1.58	(9.35)	2.85	(15.02)	13.78	(25.72)	8.01	(21.27)
간호하기	.61	(5.02)	1.96	(11.36)	4.33	(22.02)	6.64	(39.41)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	.64	(10.55)	.13	(2.80)	2.48	(17.32)	.47	(5.14)

기’, ‘놀아주기, 스포츠 활동하기’, ‘책 읽어주기, 대화하기’,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 ‘간호하기’,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 순으로 자녀돌봄 시간이 길었다. 주요 자녀돌봄 시간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평일 20.43분, 주말 40.43분, 어머니는 평일 116.12분, 주말 92.46분으로 가장 많이 ‘신체적 돌보기’에 시간을 사용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아버지(평일 14.80분, 주말 36.96분)와 어머니(평일 29.80분, 주말 28.05분) 모두 ‘놀아주기, 스포츠 활동하기’의 시간이 많았다. 어머니는 평일/주말의 ‘놀아주기, 스포츠 활동하기’의 시간이 비슷하지만, 아버지의 경우 주말에 더 길며, 어머니보다도 더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다음으로는 ‘책 읽어주기, 대화하기’가 아버지는 평일 4.00분, 주말 6.67분, 어머니는 평일 13.78분, 주말 10.94분이었다.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는 아버지가 평일 1.58분, 주말 2.85분, 어머니가 평일 13.78분, 주말 8.01분으로 어머니가 전반적으로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아버지는 어머니

보다 ‘책 읽어주기, 대화하기’,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에 비교적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책 읽어주기, 대화하기’보다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적게 참여하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문화·여가활동 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시간이 가장 많았다. 아버지는 평일 72.81분, 주말 142.50분, 어머니는 평일 77.49분, 주말 104.99분으로 문화·여가활동 시간으로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평일 어머니의 생활시간 사용을 제외하면, ‘게임 및 놀이’, ‘스포츠 및 레포츠’의 순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게임 및 놀이’는 아버지가 평일 19.44분, 주말 38.37분, 어머니가 평일 9.75분, 주말 20.81분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및 레포츠’의 경우 아버지가 평일 15.73분, 주말 23.72분, 어머니가 평일 15.28분, 주말

표 4. 30~40대 부모의 평균 문화·여가활동 시간

문화 및 여가활동	아버지				어머니			
	평일 ($n = 702$)		주말 ($n = 460$)		평일 ($n = 693$)		주말 ($n = 447$)	
	$M (SD)$		$M (SD)$		$M (SD)$		$M (SD)$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72.81	(77.14)	142.50	(117.87)	77.49	(71.53)	104.99	(84.36)
게임 및 놀이	19.44	(45.15)	38.37	(64.78)	9.75	(27.89)	20.81	(44.67)
스포츠 및 레포츠	15.73	(38.98)	23.72	(53.29)	15.28	(34.59)	15.39	(42.39)
휴식 관련 행동	9.81	(17.24)	9.93	(19.68)	7.98	(18.04)	8.05	(19.94)
문화 및 관광활동	.30	(5.61)	12.54	(41.18)	1.17	(11.50)	15.77	(43.56)
기타 여가활동	7.32	(34.45)	5.20	(24.82)	3.90	(17.58)	4.32	(18.70)

15.39분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및 레포츠’는 평일과 주말에 따른 큰 차이가 없는 반면, ‘게임 및 놀이’는 주말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게임 및 놀이’와 같은 소극적인 형태의 문화·여가활동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문화 및 관광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형태의 문화·여가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평일 0.30분, 주말 12.54분, 어머니는 평일 1.17분, 주말 15.77분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가장 적은 시간을 ‘문화 및 관광활동’에 사용하는 반면, 주말에는 다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30~40대 자녀 양육기 부모의 자녀 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 성역할 태도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에서 살펴보고자 한 변인에 대해

모두 응답한 30~40대 부모를 쌍으로 짝지었을 때 전체 사례 수는 1,041쌍이었다.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38.56세, 어머니가 36.63세로 평균적으로 아버지의 연령이 더 많았다. 40대인 부모(부 396명, 모 209명)보다 30대인 부모(부 645명, 모 832명)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아버지 47.26%, 어머니 42.27%로 둘 다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전문대를 졸업(아버지 25.84%, 어머니 29.78%)한 경우가 많았다. 취업 여부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 대부분은 취업 상태였으나(96.93%), 어머니는 절반 가까이만 취업을 한 상태였다(47.65%). 월 가구소득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인 253명(24.3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인 229명(22.00%) 순으로 많았다. 자녀의 수가 2명인 가정이 540명(51.87%)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고, 1명인 가정은 416명(39.96%)으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표 5.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1,041쌍)

변인		부 n (%)		모 n (%)	
연령	30대	645	(61.96)	832	(79.92)
	40대	396	(38.04)	209	(20.08)
학력	고졸 이하	163	(15.66)	192	(18.44)
	전문대졸	269	(25.84)	310	(29.78)
	대졸	492	(47.26)	440	(42.27)
	대학원졸	117	(11.24)	99	(9.51)
취업 여부	취업	1,009	(96.93)	496	(47.65)
	미취업	32	(3.07)	545	(52.35)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			4	(.3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1	(2.0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19	(11.4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53	(24.3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29	(22.00)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59	(15.27)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91	(8.74)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70	(6.72)
자녀의 수	800만원 이상			95	(9.13)
	1명			416	(39.96)
	2명			540	(51.87)
	3명			77	(7.40)
	4명			8	(.77)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른 자녀들봄
과 문화·여가활동 시간, 삶의 만족도의 차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는 아버지는 311명(29.88%), 어머니는
132명(12.68%)으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전통

표 6.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

(N = 1,041쌍)

성역할 태도	부 n (%)	모 n (%)
전통적	311 (29.88)	132 (12.68)
평등적	730 (70.12)	909 (87.32)

적 성역할 태도를 갖는 비율이 더 높았다. 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아버지 730명(70.12%), 어머니 909명(87.32%)으로 평등적 성역할 태도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비율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경우보다 ‘평등적’인 태도의 비율이 더 많았다.

성역할 태도의 유형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짝지은 결과, 표 7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부모 모두 전통적’인 경우는 71명(6.82%), ‘부모 모두 평등적’인 경우는 669명(64.27%)이다. 부모의 성역할 태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어머니만 평등적(아버지는 전통적)’인 경우는 240명(23.05%), ‘아버지만 평등적(어머니는 전통적)’인 유형은 61명(5.86%)이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부모 모두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어머니만 평등적’, ‘부모 모두 전통적’, ‘아버지만 평등적’인 순으로 나타났다. 부

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과 취업 여부가 다른지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아버지는 대부분이 취업 상태이고 대체로 어머니는 절반 정도만 취업한 상태였다. 특히 부모 모두 전통적인 유형일 때 어머니가 미취업인 비율이 73.24%로 다른 유형보다 20% 가까이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특징을 보인다.

자녀돌봄 시간, 문화·여가활동 시간, 삶의 만족도가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부모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F = 2.90, p < .05$), 어머니의 문화·여가활동 시간($F = 3.30, p < .05$),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F = 8.19, p < .001$)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살

표 7.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의 범주화

($N = 1,041$ 쌍)

일치 여부	n (%)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	n (%)	아버지 취업여부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미취업		취업		미취업	
				n (%)		n (%)		n (%)		n (%)	
일치	740 (71.09)	부모 모두 전통적	71 (6.82)	68 (95.77)	3 (4.23)	19 (26.76)	52 (73.24)				
		부모 모두 평등적	669 (64.27)	648 (96.86)	21 (3.14)	338 (50.52)	331 (49.48)				
불일치	301 (28.91)	어머니만 평등적	240 (23.05)	238 (99.17)	2 (.83)	110 (45.83)	130 (54.17)				
		아버지만 평등적	61 (5.86)	55 (90.16)	6 (9.84)	29 (47.54)	32 (52.46)				

표 8. 부모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자녀돌봄 시간, 문화·여가활동 시간, 삶의 만족도의 다변량 분산분석
($N = 1,041$ 쌍)

변인		성역할 태도 유형								F
		부모 모두 전통적		어머니만 평등적		아버지만 평등적		부모 모두 평등적		
		n = 71		n = 240		n = 61		n = 669		
		M (SD)		M (SD)		M (SD)		M (SD)		
자녀 돌봄 시간 (분)	부	57.89	(87.59)	52.08	(73.06)	62.95	(76.80)	69.51	(83.15)	2.90*
	모	204.79	(133.35)	181.71	(120.26)	200.00	(124.57)	181.82	(135.11)	.98
	부-모	146.90	-	129.63	-	137.05	-	112.31	-	-
문화·여가 활동 시간 (분)	부	186.20	(154.64)	163.04	(121.96)	172.13	(135.56)	166.44	(133.98)	.60
	모	167.61 ^b	(118.47)	125.79 ^a	(90.00)	137.05 ^{ab}	(100.44)	138.83 ^{ab}	(100.88)	3.30*
	부-모	18.59	-	37.25	-	35.08	-	27.61	-	-
삶의 만족도	부	3.38	(.93)	3.30	(.97)	3.44	(.89)	3.33	(.91)	.45
	모	3.73 ^{bc}	(.86)	3.27 ^a	(.93)	3.77 ^c	(.78)	3.42 ^{ab}	(.89)	8.19***

주.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할 때 ‘자녀의 수’, ‘아버지의 취업 여부’,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통제 변인으로 투입함. 사후검증의 경우 통제 변인의 투입이 제한되어 통제 변인을 투입하지 못함. Scheffé's method, $a < b < c$.

* $p < .05$. *** $p < .001$.

해보면, 사후검증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구분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평등적 성역할 태도 유형에 해당할 경우 아버지가 전통적 성역할 태도일 때보다 자녀돌봄 시간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 모두 평등적이거나($M = 69.51$, $SD = 83.15$), 아버지만 평등적일 때($M = 62.95$, $SD = 76.80$)의 자녀돌봄 시간이 어머니만 평등적이거나($M = 52.08$, $SD = 73.06$), 부모 모두 전통적일 때($M = 57.89$, $SD = 87.59$)보다 길었다. 어머니의 자녀돌봄 시간은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F = .98$, $p = .40$). 부모의 평균 자녀돌봄 시간의 차이는 부모 모두 평등적일 때 112.31분으로 가장 적었고, 부모 모두 전통적일 때 146.90분으로 가장 차이가 많았다.

어머니의 문화·여가활동 시간의 경우 성역

할 태도가 어머니만 평등적일 때($M = 125.79$, $SD = 90.00$)보다 부모 모두 전통적일 때($M = 167.61$, $SD = 118.47$) 어머니의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길었다. 이는 어머니만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일 때보다 부모 모두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어머니의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긴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평균 문화·여가활동 시간은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F = .60$, $p = .62$). 부모의 평균 문화·여가활동 시간의 차이는 부모 모두 전통적일 때 18.59분으로 가장 적었고, 어머니만 평등적일 때 37.25분으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는 어머니만 평등적일 때($M = 3.27$, $SD = .93$)보다 아버지만 평등적이거나($M = 3.77$, $SD = .78$) 부모 모두 전통

적일 때($M = 3.73$, $SD = .86$) 높았다. 부모 모두 평등적일 때($M = 3.42$, $SD = .89$)보다 아버지만 평등적일 때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어머니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을 때 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F = .45$, $p = .72$).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성역할 태도 유형,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의 상대적 영향력 비교

앞서 살펴본 부모의 성역할 태도, 자녀돌봄 시간,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인 표 9를 살펴보면, 통제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인이 투입된 모델 1의 설명력은 7.10%이다($F = 9.87$, $p < .001$). 부 연령($\beta = -.13$, $p < .01$), 부 학력($\beta = .11$, $p < .01$), 가구소득($\beta = .17$,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성역할 태도 요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델 2의 추가 설명변량은 0.18%였으며, 이에 따라 모델 2의 총 설명력은 7.29%이다($F = 7.35$, $p < .001$). 모델 2에서 부 연령($\beta = -.13$, $p < .01$), 부 학력($\beta = .11$, $p < .01$), 가구소득($\beta = .17$,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추가된 최종 모델 3의 추가 설명변량은 0.76%로, 총 설명력은 8.05%이다($F = 5.98$, $p < .001$). 부 연령

($\beta = -.13$, $p < .01$), 부 학력($\beta = .11$, $p < .01$), 가구소득($\beta = .16$, $p < .001$), 아버지의 여가활동 시간($\beta = -.07$, $p < .05$), 어머니의 여가활동 시간($\beta = .07$,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에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생활시간 요인으로는 아버지의 여가활동 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고, 어머니의 여가활동 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통제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인이 투입된 모델 1의 설명력은 5.96%이다($F = 8.17$, $p < .001$). 부 학력($\beta = .01$, $p < .05$), 가구소득($\beta = .17$,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성역할 태도 요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델 2의 추가 설명변량은 2.27%였으며, 이에 따라 모델 2의 총 설명력은 8.23%이다($F = 8.39$, $p < .001$). 모델 2에서 부 학력($\beta = .09$, $p < .05$), 가구소득($\beta = .16$, $p < .001$), 부모 모두 전통적($\beta = .11$, $p < .001$), 아버지만 평등적($\beta = .09$, $p < .01$)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의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추가된 최종 모델 3의 추가 설명변량은 0.30%로, 총 설명력은 8.53%이다($F = 6.37$, $p < .001$). 부 학력($\beta = .08$, $p < .05$), 가구소득($\beta = .16$, $p < .001$)과 부모 모두 전통적($\beta = .10$, $p < .001$), 아버지만 평등적($\beta = .09$, $p < .01$)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는 아버지의 학력

표 9.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N = 1,041쌍)

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역할 태도 변인		생활시간 변인	
		B (SE)	β	B (SE)	β	B (SE)	β
연령	부	-.03 (.01)	-.13**	-.03 (.01)	-.13**	-.03 (.01)	-.13**
	모	.00 (.01)	.01	.00 (.01)	.01	.00 (.01)	-.02
학력	부	.05 (.02)	.11**	.06 (.02)	.11**	.06 (.02)	.11*
	모	.02 (.02)	.04	.02 (.02)	.04	.02 (.02)	.04
취업여부	부	.16 (.16)	.03	.18 (.17)	.03	.15 (.17)	.03
	모	.06 (.06)	-.03	-.05 (.06)	-.03	-.02 (.07)	-.01
월평균 가구소득		.09 (.02)	.17***	.08 (.02)	.17***	.08 (.02)	.16***
자녀의 수		.01 (.04)	.01	.00 (.04)	.00	-.00 (.04)	-.00
부모의 성역할태도 유형	부모 모두 전통적			.12 (.11)	.03	.11 (.11)	.03
	어머니만 평등적			.03 (.07)	.02	.05 (.07)	.02
	아버지만 평등적			.13 (.12)	.03	.14 (.12)	.03
자녀돌봄 시간	부					.00 (.00)	.04
	모					.00 (.00)	.00
문화·여가 활동 시간	부					-.00 (.00)	-.07*
	모					.00 (.00)	.07*
F		9.87***		7.35***		5.98***	
R ² (%)		7.10		7.29		8.05	
ΔR^2 (%)				0.18		0.76	

주. 학력은 교육연한으로 변환. 취업여부(미취업 = 0, 취업 = 1).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의 준거집단은 ‘부모 모두 평등적’ 집단임.

* $p < .05$. ** $p < .01$. *** $p < .001$.

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며, 어머니의 생활시간 요인은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성역할 태도가 ‘부모 모두 전통적’이거나 ‘아버지만 평등적(어머니는 전통적)’일 때 ‘부모 모두 평등적’일 때보다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성역할 태도가 ‘부모 모두 평등적’일 때보다 어머니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갖는 경우인 ‘부모 모두 전통적’이거나 ‘어머니만 전통적’일 때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10.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N = 1,041쌍)

변인		모형 1		모형 2		모형 3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역할 태도 변인		생활시간 변인	
		B (SE)	β	B (SE)	β	B (SE)	β
연령	부	-.02 (.01)	-.08	-.02 (.01)	-.07	-.03 (.01)	-.07
	모	-.00 (.01)	-.01	-.00 (.01)	-.02	-.00 (.01)	-.01
학력	부	.04 (.02)	.01*	.04 (.02)	.09*	.04 (.02)	.08*
	모	.02 (.02)	.05	.03 (.02)	.06	.02 (.02)	.05
취업 여부	부	.06 (.16)	.01	.14 (.16)	.03	.14 (.16)	.03
	모	-.05 (.06)	-.03	-.03 (.06)	-.02	-.01 (.06)	-.00
월평균 가구소득		.08 (.02)	.17***	.08 (.02)	.16***	.08 (.02)	.16***
자녀의 수		.00 (.04)	.00	-.00 (.04)	-.00	-.01 (.04)	-.00
부모의 성역할태도 유형	부모 모두 전통적			.38 (.11)	.11***	.38 (.11)	.10***
	어머니만 평등적			-.10 (.07)	-.05	-.09 (.07)	-.04
	아버지만 평등적			.36 (.12)	.09**	.36 (.12)	.09**
자녀돌봄 시간	부					.00 (.00)	.04
	모					.00 (.00)	.02
문화·여가 활동 시간	부					.00 (.00)	-.03
	모					.00 (.00)	.04
F		8.17***		8.39***		6.37***	
R ² (%)		5.96		8.23		8.53	
ΔR^2 (%)				2.27		.30	

주. 학력은 교육연한으로 변환. 취업 여부(미취업 = 0, 취업 = 1).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의 준거집단은 ‘부모 모두 평등적’ 집단임.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30~40대 자녀양육기 부모의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부모의 생활시간 사용과 성역할 태도 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0~40대 자녀양육기 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평균 시간을 확인하고, 평균적인 시간 사용의 차이가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시간량의 차이 때문인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자체가 많기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을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는지 분석하였다. 그다음으로 부모의 성역할 태도를 전통적, 평등적인 정도로 구분하여 유형별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부부 쌍을 단위로 하여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라 자녀돌봄 시간, 문화·여가활동 시간,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부모 각자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피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간의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 사용에 차이가 있었다. 자녀돌봄의 경우 아버지는 평일에 약 63%, 주말에 약 77%가 자녀돌봄에 참여하며, 자녀돌봄은 평일에 약 45분, 주말에 약 96분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는 평일 약 97%, 주말 약 95%로 주중 상관없이 대부분이 자녀돌봄에 참여하고, 아버지보다 평일에는 2시간 반, 주말에는 1시간 더 많이 자녀돌봄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러한 전체 평균 차이는 자녀돌봄에 어머니가 대부분 참여한다는 점보다는 어머니의 자녀돌봄 시간이 더 길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돌봄 시간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러한 차이는 여성이 자녀양육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역할 본질주의가(Crompton & Lyonette, 2005; England, 2010)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근무를 하지 않는 주말조차도 아버지의 자녀돌봄

에 참여하는 정도와 시간이 어머니에 비해 적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아버지의 자녀돌봄은 자녀의 언어·인지적 발달(Tamis-LeMonda, Shannon, Cabrera, & Lamb, 2004)과 사회·정서적 발달(Cabrera, Shannon, & Tamis-LeMonda, 2007; Sarkadi, Kristiansson, Oberklaid, & Bremberg, 2008)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의 확대를 제안하는 바이다.

문화·여가 활동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평일과 주중 상관없이 대부분이 문화·여가활동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약 2시간 정도 참여하지만, 주말에는 아버지가 약 4시간, 어머니가 약 3시간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1시간 더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주말 문화·여가활동의 평균 차이는 문화·여가활동에 아버지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시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모두 비교적 긴 시간 문화·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문화·여가활동은 참여하는 것 그 자체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Diener, 2009), 여가에 대한 만족은 생활에서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정은경, 김종근, 2017; 한승엽 등, 2007).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주말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아버지에 비해 적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은 잉여시간이 생기면 개인 취미활동을 하기를 선호하지만, 여성은 자신보다는 가정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양소남, 신창식, 2011; 윤대혁, 2008).

부모가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은 하위유형별로 달랐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 시간 사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부모 모두 ‘신체적 돌보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그다음으로 ‘놀이하기’, ‘스포츠 활동하기’, ‘책 읽어주기, 대화하기’,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 순으로 많았다. 신체적 돌보기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고,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 모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자녀와 신체적으로 놀아주는 시간은 신체적 돌보기에 비하면 다소 적은 시간이기 는 하지만,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유형의 자녀돌봄의 유형이며, 특히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와 놀이할 때 신체놀이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한영숙, 2006)와 일치한다. 평일보다는 주말에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이 더 많으며, 이러한 점은 자녀와의 신체놀이를 더 많이 보낸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반면에 ‘책 읽어주기, 대화하기’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서 비교적 적은 시간이 할애되고 있었다. 부모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자녀의 행복감(송원숙, 심재웅, 2018), 감정조절능력(류성진, 2009)과 같은 사회·정서적인 측면과 어휘력, 읽기에 대한 흥미(최나야, 노보람, 최지수, 오태성, 2021)와 같은 언어·인지적인 측면에서 이점이 크다는 점에서 부모와의 소통 시간이 적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언어와 신체활동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언어능력에 종단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주지영, 한세영, 2020),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이 놀이할수록 자녀가 행복하다는 점(이승미, 김희진, 2018)을 고려한다면 질적, 양적으로 자녀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문화·여가활동 시간 사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활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문화 및 관광활동’은 평일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말에는 다소 나타나기는 하나 여전히 적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만 13세 이상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연구 결과(2019)와 유사하다. 통계청의 자료(2019)에 따르면, 여가활동으로 여전히 TV 시청이나 휴식과 같은 소극적인 유형이 가장 많았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가를 즐길수록 만족도와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점(이명우, 홍윤미, 윤기웅, 2016)에서 적극적인 문화·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인 문화·여가 시설의 구축을 제안한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평일보다 주말에 문화 및 관광활동 시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말에 가족단위의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라 자녀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부터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인 경우보다 ‘평등적’인 태도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부모 단위로 유형화하였을 때 ‘부모 모두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어머니만 평등적’, ‘부모 모두 전통적’, ‘아버지만 평등적’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서구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지배적이라는 점(은기수, 이윤석, 2005; Benokraitis, 2008)에서 부모 모두 평등적 성역할 태도인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고무적인 결과이다. 이전 생활시간연구 데이터를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분석한 연구 결과(김소영, 진미정, 2016)에 따르면, 특히 아버지가 평등적 성역할 태도인 비율은 44%~53% 사이였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만 평등적이거나 아버지만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유형도 눈에 띄는데,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서로 다를 때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배우자의 실제 수행 정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김미경, 고재홍, 2008)에서, 부부 관계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성역할 태도의 차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갈등과 관계의 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김미경, 고재홍, 2008). 이러한 성역할 태도는 부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취업(문지선, 2017), 일-가정의 양립(공선희, 2009)과 같은 사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가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일 때 어머니가 미취업인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부모 양측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문지선, 2017). 즉,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본인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Park, 2016),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곽현주, 최은영, 2015)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 어머니의 문화·여가 활동 시간,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일 때 전통적일 때보다 전반적으로 자녀돌봄 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이면 전통적인 태도에 비해 돌봄시간이 길다는 결과(박선주, 강민주, 2017; 안미영, 최지은, 2020; Evertsson, 2014)와 비슷하다. 어머니의 자녀돌봄 시간은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이는 성역할 태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어머니가 주로 자녀의 돌봄을 도맡고 있고(한경혜, 장미나, 2009),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더 부담(손문금, 2005)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과 비교해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2시간 이상 어머니가 더 자녀돌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녀돌봄의 시간 격차는 부모 모두 평등적일 때 가장 적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서로에게 작용하여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Evertsson, 2014; Kroska, 2004)를 참고해서 살펴본다면, 부모 모두 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지닐 때 자녀돌봄의 분배가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부모 모두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어머니의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길었다. 부모 모두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 때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미취업 빈도가 높기 때문에(류연규, 하운숙, 2017; 문지선, 2017; Park, 2016)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긴 것으로 보인다. 즉, 시간 가용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미취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문화·여가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문화·여가활동 시간은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3시간 안팎으로 어머니보다 모두 길었다. 이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문화·여가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과 비교해보면,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아버지의 평균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자녀돌봄 시간의 약 3배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시간 사용의 간극이 크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문화·여가활동을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자녀를 돌보며 여가활동을 즐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의 경우 ‘어머니만 평등적’일 때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어머니의 성역할 태도가 평등적일수록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김효진 등, 2020)와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는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기대하는 실제 수행 사이에서 불일치가 존재해 갈등을 겪기 때문(김미경, 고재홍,

2008)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에 ‘아버지만 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성역할 태도가 일치할 때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고재홍, 전명진, 2003; 김은지, 박재호, 2010)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성역할 태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가사분담과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박선주, 강민주, 2017; 안미영, 최지은, 2020; Evertsson, 2014)일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 자녀 돌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미치는 영향력이 서로 달랐다.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에는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에 대한 만족이 삶의 만족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한승엽 등, 2007)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문화·여가활동 시간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봤을 때, 미디어를 활용한 여가활동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를 즐길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점(이명우 등, 2016)을 고려한다면, 평일과 주말에도 소극적인 여가보다는 적극적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방안일 것이다. 반면에 어머니의 문화·여가활

동 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문화·여가활동뿐만 아니라(한승엽 등, 2007), 배우자의 여가활동이 간접적으로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에는 자녀돌봄 시간과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성역할 태도가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남성의 성역할 태도가 심리적 안녕감, 결혼만족도와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Barnett & Hyde, 2001; Zamarrripa, Wampold, & Gregory, 2003)와 일치하지 않는다. 부모의 성역할 태도가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기존의 연구가 남성의 성역할 태도에 한정하여 살펴본 것과는 달리, 부모의 성역할 태도의 유형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부부의 성역할 태도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버지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으며, 성역할 태도 유형이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의 삶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성역할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녀돌봄 시간(안미영, 최지은, 2020; Evertsson, 2014)을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돌봄 시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모두 어머니의 자녀돌봄 시간과 비교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돌봄 시간이 아버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지 않은 이유로 추측해볼 수 있다.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는 부모의 성역할 태도 유형만이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자녀돌봄 시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은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자녀돌봄 시간이 아버지보다 길고, 문화·여가활동 시간은 적었다는 걸 고려하면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결과는 뜻밖이다. 돌봄 상황 자체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돌봄 과정에서 수반되는 갈등이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김미령, 2014), 자녀돌봄의 시간 자체보다는 그와 관련된 관계적 양상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문화·여가활동 시간이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시간 자체가 영향을 미칠 만큼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여가를 주로 즐기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부부의 성역할 태도 유형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평등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보다 부모 모두 전통적이거나, 아버지만 평등적일 때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가치관이 일치할 때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혀져 왔으나(고재홍, 전명진, 2003; 김은지, 박재호, 2010), 단순히 가치관이 일치한다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어머니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보이는 유형일 때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점은 의외의 결과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비하면 평등적인 성역할 태도로 많이

변화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 태도에 동의하는 사회풍토가 만연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공선희, 2009; 은기수, 이윤석, 2005; Benokraitis, 2008; Brinton & Lee, 2016) 추측해본다. 실제로 가정 돌봄과 자녀양육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공선희, 2009)을 보여주듯 어머니의 자녀돌봄 시간은 아버지보다 평균적으로 2시간이 더 길었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만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에 수긍하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어머니가 가지고 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을 것이다. 부부의 성역할 태도 유형별로 나누어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도 다른 유형은 모두 절반 정도만 미취업 상태였으나, 부모 모두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보일 때 미취업인 경우가 70% 이상이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지며 갈등을 겪는(양소남, 신창식, 2011) 경우가 더 적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의 성역할 태도를 유형화하여 부부 단위로 짝지어 성역할 태도 유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갖지만, 성역할 태도의 경우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란 말에 동의하는 정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성역할 태도가 입체적으로 측정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30~40대 자녀 양육기 부모의 자녀돌봄 시간과 문화·여가활동 시간을 단순히 총합으로만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하위요인별 시간 사용을 분석하고, 이러한 시간 사용의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시간 사용의

정도와 부모의 성역할 태도의 유형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 정책의 수립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돌봄 시간이 평균적으로 긴 이유는 자녀돌봄에 참여하는 각 개인의 시간 자체가 길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부의 공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아버지가 자녀와 스포츠 활동하기를 즐기는 시간이 비교적 길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체놀이와 관련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긍정적일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대화하는 시간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을 미루어보았을 때, 자녀와 질적, 양적으로 좋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화·여가활동의 경우 미디어를 활용한 활동이 가장 많고, 관광 및 문화활동을 즐기는 시간은 현저히 적었다는 점에서, 가족 단위로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문화시설이 거주지역의 근거리에 다양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역할 태도 유형의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 단위로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부의 성역할 태도 유형의 조합에 따라 생활시간의 사용과 삶의 만족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고재홍, 전명진 (2003).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16.
- 공선희 (2009). 서울시 기혼남녀의 일-가정양립과 저출산. 서울: 여성가족재단.
- 곽현주, 최은영 (201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과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구조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88(1), 429-456.
- 권순범, 배한진, 진미정 (2019). 시간일지와 미디어일지의 비교를 통한 청소년의 ICTs 미디어 이용시간 측정. *조사연구*, 20(2), 61-83. <https://doi.org/10.20997/SR.20.3>
- 권혜진 (2010). 영유아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버지 역할만족도와 역할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의 친밀감의 매개효과 탐색. *한국보육학회지*, 10(4), 87-106.
- 김미경, 고재홍 (2008). 프로파일 일치도로 본 부부간 유사성과 배우자 이해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215-235. <https://doi.org/10.18205/kpa.2008.13.2.008>
- 김미령 (2014). 손자녀 돌봄노동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6(1), 178-204. <https://doi.org/10.21478/family.26.1.201403.007>
- 김민녀, 채규만 (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55-671.
- 김소영, 진미정 (2016).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2004년-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34(3), 65-84. <https://doi.org/10.7466/JKHMA.2016.34.3.65>
- 김은지, 박재호 (2010). 부부간 유사성 및 일치도가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03-423. <https://doi.org/10.18205/kpa.2010.15.3.005>
- 김진옥, 박은영 (2018).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남성의 일-가정 균형이 자녀관계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양육참여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1), 211-236. <https://doi.org/10.46415/jss.2018.03.25.1.211>
- 김효진, 신현우, 홍세희 (2020). 부부의 성역할 인식과 가정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상호매개효과: APIMeM의 적용. *보건사회연구*, 40(3), 459-491. <https://doi.org/10.15709/hswr.2020.40.3.459>
- 류성진 (2009).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행위가 자녀의 감정조절능력 및 인지적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53(5), 5-30.
- 류연규, 하운숙 (2017). 일가족양립정책과 성역할태도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33(1), 71-105. <https://doi.org/10.18859/ssrr.2017.02.33.1.71>
- 문지선 (2017). 부부의 성역할 태도로 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학*, 51(2), 191-232. <https://doi.org/10.21562/kjs.2017.05.51.2.191>
- 박선주, 강민주 (2017).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어머니 문지기 역할이 아버

- 지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1(3), 87-111.
<https://doi.org/10.5718/kcep.2017.11.3.87>
- 박은정, 이성림 (2013). 미취학자녀를 둔 맞벌이부부의 자녀양육시간 유형에 따른 시간부족감 및 시간사용만족도의 차이. 가정과 삶의질연구, 31(4), 97-111.
<https://doi.org/10.7466/JKHMA.2013.31.4.097>
- 변해심 (2000).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여와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응집력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9(1), 170-178.
- 손문금 (2005).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 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생활시간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8(1), 277-311.
- 손애리 (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송원숙, 심재웅 (2018). 부모와 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3), 857-879.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3.857>
- 안미영, 최지은 (2020). 한국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 자녀 연령대에 따른 경제적 의존성과 성역할 인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2), 83-103.
<https://doi.org/10.21321/jfr.25.2.83>
- 양소남, 신창식 (2011).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양립 고충. 보건사회연구, 31(3), 70-103.
<https://doi.org/10.15709/hswr.2011.31.3.70>
- 윤기봉, 지연경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남편의 양육참여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단적 자기-상대방 효과. 인간발달연구, 24(3), 133-153.
<https://doi.org/10.15284/kjhd.2017.24.3.133>
- 윤대혁 (2008). 맞벌이부부의 가정-직장 균형과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5(1), 87-109.
- 윤미래, 김태일 (2016). 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상황, 유형과 영향 요인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2), 153-185.
<https://doi.org/10.23036/kapae.2016.26.2.006>
- 은기수, 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 이명우, 홍윤미, 윤기웅 (2016). 여가 활동이 국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여가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0(2), 264-287.
- 이승미, 김희진 (2018). 부모-자녀 놀이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행복과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6), 89-105.
<https://doi.org/10.14698/jkcce.2018.14.06.089>
- 이재완, 강혜진 (2018). 위라벨과 삶의 만족: 세대 간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3), 267-291.
<https://doi.org/10.20484/klog.22.3.11>
- 장영애 (2012). 학령기 아동의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의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3(2), 163-175.
- 정은경, 김종근 (2017). 베이비부머의 여가활동과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0), 501-512.
<https://doi.org/10.14400/JDC.2017.15.10.501>

- 주지영, 한세영 (2020). 부모-자녀의 언어/신체 놀이 활동 참여와 자녀 어휘발달의 상호 교류관계 및 종단적 효과: 영국의 유아기와 아동기를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41(6), 125-141.
<https://doi.org/10.5723/kjcs.2020.41.6.125>
- 채민진 (2019). 한국 2, 30대 남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 인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나야, 노보람, 최지수, 오태성 (2021). 가정의 독서환경 군집에 따른 유아 어휘력과 읽기 흥미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2), 23-37.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2.23>
- 통계청. (2019). 2019년 사회조사 결과 (복지 · 사회참여 · 문화와 여가 · 소득과 소비 · 노동).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887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C%97%AC%EA%B0%80에서 2021년 5월 5일 인출
- 한경혜, 장미나 (2009). 기혼남녀근로자의 일 · 가족 균형과 관련요인: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85-115.
<https://doi.org/10.21478/family.21.1.200903.004>
- 한승엽, 김홍렬, 윤설민, 장윤정 (2007). 여가활동 유형에 따른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의 관계 연구: 문화적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2(3), 323-339.
- 한영숙 (2006). 아버지의 놀이참여와 유아-아버지 관계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89-212.
- 한인영, 홍선희 (2011). 여성의 성역할인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477-498.
<https://doi.org/10.18205/kpa.2011.16.4.004>
- 허수연, 김한성 (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4, 5-29.
<https://doi.org/10.16975/kjfs.2019..64.001>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1904_1
- Barnett, R. C., & Hyde, J. S. (2001). Women, men, work, and family: An expansionist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6(10), 781-796.
<https://doi.org/10.1037/0003-066X.56.10.781>
- Benokraitis, N. V. (2008). *Marriages and families: Changes, choices, and constraint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Brinton, M. C. (2016). Intentions into actions: Norms as mechanisms linking macro-and micro-level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0(10), 1146-1167.
<https://doi.org/10.1177/0002764216643130>
- Brinton, M. C., & Lee, D. J. (2016). Gender-role ideology,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st-industrial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2(3), 405-433.
- Cabrera, M. J., Shannon, J. D., & Tamis-LeMonda, C. (2007). Fathers'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cognitive and emotional

- development: From toddler to pre-K. *Development Science*, 11(4), 208-213.
<https://doi.org/10.1080/10888690701762100>
- Cha, Y. (2010). Reinforcing separate spheres: The effect of spousal overwork on men's and women's employment in dual-earner househol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5(2), 303-329.
<https://doi.org/10.1177/0003122410365307>
- Coplan, R. J., Bowker, A., & Cooper, S. M. (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3), 376-395.
[https://doi.org/10.1016/S0885-2006\(03\)00045-0](https://doi.org/10.1016/S0885-2006(03)00045-0)
- Corrigan, E. A., & Konrad, A. M. (2007). Gender role attitudes and careers: A longitudinal study. *Sex Roles*, 56(11), 847-855.
<https://doi.org/10.1007/s11199-007-9242-0>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0.tb02889.x>
- Crompton, R., & Lyonette, C. (2005). The new gender essentialism: Domestic and family 'choices' and their relation to attitud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6(4), 601-620.
<https://doi.org/10.1111/j.1468-4446.2005.00085.x>
- Dew, J., & Wilcox, W. B. (2011). If momma ain't happy: Explaining declines in marital happiness among new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1), 1-12.
<https://doi.org/10.1111/j.1741-3737.2010.00782.x>
- Diener, E. (2009). Assessing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In Diener E. (Ed.),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pp. 25-66). New York, NY: Dordrecht.
https://doi.org/10.1007/978-90-481-2354-4_3
- Duvall, E. M., & Miller, B. C. (1985).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6th ed.). New York, NY: Harper & Row.
- England, P. (2010). The gender revolution: Uneven and stalled. *Gender & Society*, 24(2), 149-166.
<https://doi.org/10.1177/0891243210361475>
- Evertsson, M. (2014). Gender ideology and the sharing of housework and child care in Sweden. *Journal of Family Issues*, 35(7), 927-949.
<https://doi.org/10.1177/0192513X14522239>
- Kim, E., & Cheung, A. (2015). Women's attitudes toward family formation and life stage transitions: A longitudinal study in Kore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5), 1074-1090. <https://doi.org/10.1111/jomf.12222>
- Kroska, A. (2004). Divisions of domestic work: Revising and expanding the theoretical explanat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25(7), 900-932.
<https://doi.org/10.1177/0192513X04267149>
- Park, Y. (2016). A microdata analysis of the gender pay gap in South Korea: How do social norms and gender role attitudes affect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Korean women?. *Senior Projects Spring* 329. Retrieved

- May 27, 2021, from
https://digitalcommons.bard.edu/senproj_s2016/329
- Sarkadi, A., Kristiansson, R., Oberklaid, F., & Bremberg, S. (2008).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cta Paediatrica*, 97(2), 153-158.
<https://doi.org/10.1111/j.1651-2227.2007.00572.x>
- Tamis-LeMonda, C., Shannon, J. D., Cabrera, N., & Lamb, M. E. (2004). Fathers and mothers at play with their 2-and 3-years olds: Contributions to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5(6), 1806-1820.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4.00818.x>
- Zamarripa, M. X., Wampold, B. E., & Gregory, E. (2003). Male gender role conflict, depression, and anxiety: Clarification and generalizability to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33-338.
<https://doi.org/10.1037/0022-0167.50.3.333>

1 차원고접수 : 2022. 01. 29.
 수정원고접수 : 2022. 08. 13.
 최종게재결정 : 2022. 09. 27.

The Effects of Gender Role Attitude, Time Used for Childcare and Cultural/Leisure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of 30s and 40s Parents in Their Child Rearing Stage: The Aspects of Time Use

Choi, Jisu

Choi, Naya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dentifies the aspects of childcare, and cultural/leisure activities time use of 30s and 40s parents in their child rearing stage, and examines the effects of parents' lifetime use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life satisfaction. Statistics Korea's time diaries from the 2019 Korean Time Use Survey were used. Factor decomposition,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tata 14.0, SPSS 22.0, and Excel 2016. Mothers took care of their children for two and a half hours more on weekdays and one hour more on weekends than fathers. The time for cultural/leisure activities was shorter by one hour on weekends. Both parents devote the most time to 'physical care' among childcare and 'activities using media' among cultural/leisure activities. When both parents had an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 their fathers took the longest time to care for their children. When both parents had a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 their mothers spent the longest time on cultural/leisure activities. When only the father had an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 the mother's life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The father's life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the cultural/leisure activities time of himself and his spouse, and the parent's gender role attitude type had an effect on the mother's life satisfaction.

Keywords: time use survey, life satisfaction, gender role attitude, childcare time, cultural/leisure activities time